



한국형에니어그램이 만들어 가는 상담 복지 교육매거진

www.kenneagram.com

월간

나눔과 힐링

ISSN 2288-2251

등록번호 : 금천 라 00140호

제 44 호

2016년 12월 25일~2017년 1월 24일

발행인 · 편집인 : 윤운성

기사제보 : 02-3446-3165 / FAX : 02-515-6784

인쇄 :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닥터 윤
심리상담발달센터

성심인성연구원

'월간 나눔과 힐링'은 매월 25일에 발간하여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의 소식과 학술단체 및 복지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통합 매거진입니다.

blog.naver.com/kenneagram



C · O · N · T · E · N · T ·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통한 힐링 여변 우형의 상경을 자각하게 하는 시 (뒷지리 - 도종환) • 책 읽어주는 상담가 박현경 전임교수 신화와 심리학이야기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부> • 한국애니메이션교육연구소 한국형애니메이션 4단계 • 애니메이션과 성장프로그램 애니메이션과 함께 영혼상태를 발견하기 영혼의 확장: 영적 활력 찾기 <부> • 애니메이션 복키메 한국형애니메이션교육연구소 교수자료 열아보기 • 애니메이션 교육후기 한국형애니메이션 교육후기 •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세상 애니메이션과 돈: 두려움에서 사랑까지 생존하기 영역 2: 소비 <부> 	<p>03</p> <hr/> <p>05</p> <hr/> <p>07</p> <hr/> <p>09</p> <hr/> <p>11</p> <hr/> <p>13</p> <hr/> <p>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과 영화 영화와 심리학 보통 사람들 <부> • 애니메이션과 여행 겨울을 품은 세계의 신년축제 • 애니메이션도 새해 밤 뽕상) • 책 · 교육도구 소개 감사도구 및 교육도구 소개 • 문화소식 연극, 영화, 콘서트 등 이달의 문화소식 • 연구소 소식 및 회원동정 연구소상센터소식, 회원 및 직문강사 동향 • 연구소 교육일정 한국애니메이션교육연구소 1월 교육일정 	<p>17</p> <hr/> <p>19</p> <hr/> <p>21</p> <hr/> <p>23</p> <hr/> <p>25</p> <hr/> <p>27</p> <hr/> <p>29</p>
--	---	---	---



한국형애니메이션이 만들어 가는 상담 · 복지 · 교육 매거진

한국애니메이션교육연구소 www.kenneagram.com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116호 한국애니메이션교육연구소
 TEL. 02) 3446-365 | FAX. 02) 515-6784 | Email. help@kenneagram.com

뒷자리

도종환

맨 앞에 서진 못하였지만

맨 나중까지 남을 수는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논리를 갖추지도 못했고

몇 마디 말로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 또한 없지만

한번 먹은 마음만은 버리지 않아요

함께 가는 길 뒷자리에 소리없이 섞여 있지만

옳다고 선택한 길이면 끝까지 가려 해요

꽃 지던 그 봄에 이 길에 발 디더

그 꽃 다시 살려내고 데려가던 바람이

어느새 앞머리 하얗게 표백해버렸는데

앞에 서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들이

참을성 없이 말을 갈아타고

옷바퀴 입는 것 여러 번 보았지요

떠라갈 수 없는 가장 가파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이젠 믿지 않아요

아직도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못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이 세월 속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가지예요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다는...



신화와 심리학이야기

오이디푸스

꿈플렉스

<2부>

비현정 전담교수

우리안에 있는 오이디푸스

이것이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신화적 근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테베의 부모와 코린토스 부모, 사실 우리는 이 신화를 보면서 오이디푸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토록 치참한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의문하게 될 것이지요. 물론 그 는 성격이 급하고 그 걸과 함부로 칼을 휘둘러 결과적으로 자신 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또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 은, 생각하기도 힘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패륜의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은 진적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인 라 이오스 왕의 죄가 그에게 대수되었을 뿐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기묘한 운명 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운명에 놓인 3~5세 경의 생물학적인 존재인 아동의 발 달과정상의 복잡하고도 살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심리상태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상적 자폐(태어나서~2개월)를 거쳐, 공생기(2~6개월), 분리와 개별화(6~24개월)를 경험하고

대상항상성(24~36개월)을 성공적으로 마친 아동들은 어른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은 대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즉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며, 잘 양육 해주는 코린토스의 부모 같은 양육자와, 그러나 때로는 아담치 고, 기죽이고, 무안하게 하며, 욕구를 좌절시키는 부정적인 양 육자의 모습인 테베의 부모와 같은 양가적인 부모상이 오이디 푸스 시기의 아동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남아가 가진 어머니에 대한 애정,욕망으로 경쟁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생기를 제거할 것이라는 지세불안(castration anxiety)에 대한 해석도 확산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신의 욕구를 좌절시키고 분화된 심재한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 하고 끊임없이 좌절시키는 부모, 나와 대상, 환경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보다는 무관심하거 나 아담된다는 부모, 실수나 좌절 했을 때 자존감을 세워주기 보다는 수치심과 좌절감을 키워주는 부모를 통해 아동들이 기 가 죽어버리는 상태, 즉 심리적 지체로 해석하는 것이 이 시기 의 아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시기

에 여아와 남아의 경우를 구분하기보다는 이 시기에 느낄 수 있 는 아동의 발달단계상의 전체적인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부모, 엄마, 아빠가 너 무 좋은데 엄마가 아빠 보다 날 더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나, 때로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아빠와 아빠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 은 복잡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심리상태를 오이디푸스 콤플렉 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대단한 남녀관계, 애착관계 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경험들이 이 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아 동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포기 또는 극복하고 부모와 동일 시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진정한 가족으로서 자기 항상성을 통해 사회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이디푸스 시기는 자기 역할, 자기 위치에 직응하는 중 요한 시기이며, 2차 관계(엄마와 나)에서 3차 관계, 3자 관계(엄마와 나, 아빠)에서 다자관계로 관계를 확대해 가는 결정적인 시기인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성인의 신경증의 근원을 오이디 푸스시기로 보고 이 시기를 중요하게 여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는 오이디푸스시기에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얼마나 현명하게 행동하고 양육자로서의 선행적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아동이 수없이 많이 분화된 감정과 사고들을 부모가 언어화 해주고 양 가적이고 복합적인 감정들을 적절히 표현해주고 인정해 주며, 적절한 욕구 충족과 적절한 욕구 결핍을 통하여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초자아의 형성과 다시 초자아를 극복하면서 자유로운

사상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운명에 놓이더라도 신 을 탓하지 않고 나의 삶을 산 것은 나이므로 책임은 내가 질 수 밖에 없다고 스스로 눈을 찌르고 죽음의 신을 찾았습니다. 이치 럼 우리 인간들 모두는 원하지 않는 부모, 직절하지 못한 양육 하에 자신의 운명이 놓이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질 줄 알 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힘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 고, 긍정적인 존재로 받아야 하는 것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시 사점이야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 윤순임 외(2000). 현대상담,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 성출판사.
- 마거렛 말러(2001). 이계훈역 (2000). 정신분석적 대상관계이론. 한국심리치료연 구소.
- 이근후 외(1998). 정신분석학. 하나의학사.
- 로버트 영(2002). 오이디푸스콤플렉스. 이계이북스.
- 로버트 로젠탈 외(2000). 피그말리온효과. 이광리요.
- 메건트레지더(2002). 사랑의 비밀. 문학동네
- 제레미 홉즈(2002). 나르시시즘. 이계이북스
- 피에르바뵈(2000). 프로이트 20세기의 해몽가. 시공사.
- 이운기(20000). 그리스 로마신화.2,3,4.웅진지식하우스.
- 홍대식 역(2000). 심리학개론. 박영사.

한국에니어그램 4단계 교육과정
 주제: 에니어그램 평가 부재: 통합으로 가는 여행 지도자: 윤은성 소장 외
 후원: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장소: 천안상록리조트 일시: 2016. 12. 10 - 11



**한국에니어그램 교육연구소
4단계**

2016. 12. 10(토)~11(일)

상록리조트 대 컨벤션센터 아우내홀

교육시작



1시부터 시작된 4단계 교육에서 각단히 자기소개를 하는 교육생.

조별모임



유형별 발달수준에 대한 집단토의를 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회화의 언덕



황은신 전임교수의 시연을 통해 의식상장을 위한 연습을 한다.

회화의 언덕



황은신 전임교수의 시연을 본 후 밖으로 나가 식사용을 체험한다.

이원훈련



지미선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진행된 이원훈련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 중인 교육생

동작명상



조주영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동작명상을 하고 있다.

영화를 통한 에니어그램 분석



소희정 전임교수의 지도로 영화 '타이타닉'을 보고 조별로 모여 영화 속 등장인물의 유형을 탐색한다.

체험나누기



1박 2일로 진행된 한국에니어그램 4단계를 통해 얻은 지식과 체험을 나누는 시간.

영혼의 호수장
영

영적 활력 찾기

<3부>

에니어그램과 함께 영혼잠재력 발견하기 (윤은성 역, 2015) 중 발췌

당신이 죽지 않겠다는 사실은 살아 있다는 충분한 증거이다.

- 데이비트 스탠튼_레스트(David Standt Rest) -

감정 중심

▣ **본질적 목적**
인결, 자신, 다른 사람들, 우주, 신과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

▣ **일반적 사용**
감정, 자기 자신, 우주, 신과의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

▣ **타고난 자원**
▶ 구체적인 실현 : 혼란스러운 것을 명백하게 만드는 것
▶ 합성 : 신성한 개념을 전체와 결합함
▶ 통합 : 무작위적인 자식을 새로운 체계와 결합시킴
▶ 영적 지각 : 사람들 안의 깊은 현상을 지각함
▶ 선에 대한 욕망 : "나는 길이다."

행동 중심

▣ **본질적 목적**
안내, 의도, 이 세상 속에 개인의 존재의 직업을 끝내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

▣ **일반적 사용**
안전, 반응, 성취, 운동

▣ 타고난 자원

- ▶ 자유로움 : 한 개인의 진정한 본성을 표현하는 것
- ▶ 안내 :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짐작하는 것
- ▶ 발전 : 진보를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감
- ▶ 완성 : 개념을 구체화함
- ▶ 물질 세상에 대한 접근 : 물질적 현실을 잘 파악하고

▣ 통합의 지능 : 상징과 이미지

- ▶ 입, 손, 발
- ▶ 내면의 화법
- ▶ 이 중심의 완성은 창조적 표현이다.
- ▶ 이 중심은 신성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고행이다.

각각의 중심이 주는 블라움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많은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이 위대한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공통의 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사고 중심 우리의 문화가 사고 중심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중심의 장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모든 새로운 것은 아이디어에서 생겨난다. 변화의 시작은 자신에 대해 다른 이미지를 가지는 것에서 비롯된다.

또한 우리는 사고 중심이 신뢰와 믿음의 고행임을 알고 기쁘다. 신뢰와 믿음은 같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신뢰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사실적인 암을 넘어서는 내면의 암이다. 이해가 높아지면 신뢰는 사고 중심의 초월적 표현임을 깨닫게 된다.

감정 중심 감정 중심은 종합, 의식, 의지의 고행이다. 이것은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인간관계에만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종합은 아이디어, 이미지, 감정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의식은 우리 자신과 물리적인 가치관 사이에 관계를 수립한다.

의지가 왜 이 중심에 속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모든 감정이 자신만의 작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을 이해하는 열쇠다. 이런 감정의 작은 의지들은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갔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산산 조각이 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일관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된다. 내면의 상정을 위한 목표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많은 작은 의지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길들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모든 감정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와 상정을 결합할 수 있다. 행동 중심 우리가 처음 에니어그램을 배울 때 행동 중심에 대한 설명 중 많은 부분이 지나치게 지루하다고 느꼈다. 그 후 이 중심이 수확과 축적, 기쁨, 창조, 아름다움, 인내가 시작되는 고행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매우 기쁘다.

행동 중심은 움직임이며 그것은 곧 놀이와 춤을 의미한다. 이 중심은 기쁨과 환희,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중심은 우리와 물질 세상 사이를 연결해준다. 사고와 감정 중심이 살아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은 행동 중심이다. 아름다움은 발전의 결과이다. 감정과 사고 중심의 지혜가 결합된 지혜가 우리를 행동으로 안내한다.

이 중심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지혜를 담고 있다. 이것은 성취의 지능일 뿐만 아니라 휴식의 지능이며 생산성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레지이며 행동일 뿐만 아니라 존재이다. 우리가 행동 중심의 숨겨진 면을 잘 이해한다면(최소한 서양 문화에서는 숨겨진) 행동 중심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이것이 다른 두 중심과 똑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활용방법

직업카드를 이용한 진로탐색



- ▶ 직도리 게임
- ▶ 뒤집어 짝 맞추기 게임
- ▶ 카드 뽑기
- ▶ 덧붙여 말하기 게임
- ▶ 빙고게임
- ▶ 스피드게임
- ▶ 덩고 게임
- ▶ 이구동성게임

직(업카드)도리 게임

- 인원** 3명이 적당
- 준비물** 직업카드 2Set

- ▶ 각 세트 같은 유형 한가지 추림(15매x2) & 다른 유형 15장 추려 섞음 > 총 45매
- ▶ 3명에게 각 6매 배부 & 바닥에 6장 글자 면이 보이게 깔고, 나머지는 중앙에 엮어 놓음
- ▶ 만일 같은 카드 깔리면 선이 가져감. 돌아가며 한 장 내고 바닥에 동일한 카드 있으면 짝을 맞추어 가져감. 없으면 바닥에 깔 & 중앙의 것을 한 장 뒤집어 같은 방식으로 진행
- ▶ 3명중 한 명이 손에 있는 카드가 없어지면 게임 종료

↳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



뒤집어 짝 맞추기(기억력 게임)

- 인원** 2~6명 or 더 많아도 무방
- 준비물** 직업카드 2Set

- ▶ 각 세트의 동일유형(1유형 10개씩) 골라 엮어서 섞어놓음 (직업명 가림)
- ▶ 돌아가며 카드 2장씩 뒤집어 같은 직업이면 가져가고, 다르면 제자리에 둘
- ▶ 바닥의 카드가 다 없어지면 획득한 카드 수로 승자 가림

Cf 한 유형이 끝나면 다른 유형도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음

카드뽑기 게임(원카드)

- 인원** 3~5명 정도
- 준비물** 직업카드 2Set

- ▶ 한 유형(20장)의 카드를 조원 각자에게 골고루 배부한 후 다른 세트에서 앞서 나누어 준 것과 같은 유형의 카드를 섞어서 다시 조원에게 배부. 각자는 자신의 카드 앞면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 들고 있음
- ▶ 각자는 자기 가지고 있는 카드에서 2장의 동일한 카드가 있으면 자기 앞에 내려 놓는다. &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오른쪽 옆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음
- ▶ 뽑아온 카드와 동일한 카드가 있으면 자기 앞에 내려 놓음
- ▶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위의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손에 들고 있는 카드가 모두 없어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됨



한국형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과정

홍인숙 일반강사

지난 11월에 대전에서 있었던 123 통합단계를 마치고 벌써 한달 여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3일간 꼬박 30시간을 꽉 채운 에니어그램 교육을 받고 나니 웬만큼 교육에 이력이 붙었다고 자부한 나였지만, 방대한 양의 이론을 머릿 속에 담고는 며칠 동안 시원한 느낌이 오지를 않았다.

교육을 마치고 기억에서 회미해지기 전에 부지런히 3단계 과정을 정리해서 올리고 나서도, 뭔가 개념정리가 정확히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의심이 되기도 했다.
자각중 콜렉션 시대에 또 하나의 자각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고비용을 지불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다.



일반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3단계 이후 추가로 검사지 해석 교육을 들어야 자격이 나온다하니, 12월 초에 그 과정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되었다. 물론 강의를 들을 때는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와 닿기도 하는 느낌에 점점 지식욕구가 충족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쨌든 이제 곧 기한이 되면 자격증도 도착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격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하는 일의 연장에서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한 챗터 정도의 콘텐츠의 추가 기능인가? 나는 설익은 공부로 간단히 세웠을 때의 낭패감과 자체에의 두려움을 너무 잘 알기에, 그러면서도 새롭게 공부한 분야를 접목한 창의적인 수업 방식을 즐기는 모험심이 많기에, 이번 에니어그램 과정도 무척이나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했었다. 하고 있는 과목에 좀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시간의 교육을 내리 3일간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었다. 소화불량이랄까?

나는 평소 뭔가 결정을 내릴 때는 지나칠 정도로 심사숙고를 하지만, 안전하다고 검증이 되지 않는 분야라도 일단 내 관심이 가지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면이 있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을 무척 불편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 배우는 것을 무척 기뻐한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끝이없도록 믿는 면도 있지만, 한번 눈 밖에 나면 지나칠 정도로 기속하게 대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나의 양면성을 조절하기 위해 자기성찰을 진지하게 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런 나의 성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이번 에니어그램을 통해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바로 12월 17일에 받은 상담 실제 시간에 사례 연구를 통해서였다. 123단계 교육과 검사지 해석 교육을 바탕으로 한 상담 사례를 통해 나의 중심 유형의 미덕과 날개의 미덕, 그리고 본명과 통합을 통해 진방위적인 나의 역량을 구조화시키고 나니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8W9 유형인데, 7번 날개의 창의적인 강점과 낙천적인 일면도 많은 기질이었다. 거기서 시상이 풍부한 2번의 강점과 5번의 통찰력까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에니어그램을 공부한 것을 토대로 상담의 실제에 차분하게 적용하면서 나와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시간과 여건이 허락될 때 한 단계 한 단계 더 많은 공부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전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올라가 상담 실제 과정을 수강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뭔가 정돈된 느낌이랄까? 특히 교육을 진행해주신 박한경 교수님의 깔끔한 강의와 편안한 모습 기억에 남는다. 늦게까지 남아서 자질구래한 질문을 하는데도 성의를 더하시는데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진정된 상담자의 모델이 아닐런지.. 두서없이 글을 썼지만 진심만이 남기를 소망한다. 올해가 지나간다. 다음에 오는 해도 성스럽고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으며, 모두의 건강을 더불어 기도한다.

돈의 9가지 영역 생존하기 영역 2: 소비

에니어그램과 돈 : 두라움에서 사람까지(운명성 역, 2015) 中 밑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먹고도 임하고 비바람에서 피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꼭 얻어야만 한다. 2번 영역은 표면적으로는 지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실 질적으로는 양육에 관한 것이다. 일단 돈이 흘러들어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의력을 돈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2번 영역은 우리가 건강하고 질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강화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 영역과 건강간 관계를 갖 기 위하여, 우리의 소비 행위와 동기에 대해 자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 고려해야 될 3 개의 분야가 있다.

1. 지출의 본질

내가 소비한 내역을 일일이 챙기고 있는가? 소비의 범주, 수행인 지출의 형태, 지불수단의 형태에 의해 소비의 내역을 쟁 길 수 있을까? 모두가 다 각자의 방식에 의해서 흥미롭다. 소비의 범주를 분류함에 따라 관련 알맹이들의 돈이 음식, 옷, 집, 건강, 교통비, 여행비, 선물,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지 내가 알고 있는가? 수행인에 의하여, 다른 이들의 소비에 비하여 내 소비가 얼마만큼이나 쓰이고 있는지 내가 아는가? 지출의 형태에 의해, 얼마나 많은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에 중간으로 필요한 것에 불필요한 것들에 쓰이고 있는지 내가 아는가? 지불 수단의 형태에 의해 얼마만큼의 돈이 수표 나 현금에 비해 다양한 신용카드에 쓰이는지 내가 아는가?

2. 소비하는 동기

무엇이 내 소비를 몰아내려는가? 안전, 사회적 유대, 사회적 지위 혹은 자극에 의해 이끌리려는가? 무엇이 옳고, 의미 있 으며 지혜로운가에 관한 내 사고에 의해 내가 움직이는 건가? 감소한 쪽이 아니면 아니면 이웃 사람이 시는 수준을 따라 잡으려 고 발바둥 치는가? 내 소비는 공포심-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혹은 좋은 제품들이 아니라는 그러한 공포심-에 의해 촉 발되는 것인가? 무엇이 소비하기에 적절한 것이며 적절한 것만을 구입할까 나가 구분할까?

3. 소비의 유형

나 자신에게서 관찰하는 소비의 유형과 주기는 무엇인가? 내 소비는 일관성이 있는가 아니면 증폭적인가? 계획적인가 아 니런 임의적인가 심지어 무모하기까지 한 것인가? 물품구입을 주로 신용카드는 혹은 현금로 하는가? 이것이 내 소비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내가 구매하는 이 물건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내가 고마워하는 가? 자기 충족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다른 이들과 구별해내기 위해 돈을 쓰는가?

나는 돈과의 관계가 문제가 좀 있다. 소비하면서 좌익식을 느끼거나, 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비탈림과 분노를 느끼거나, 돈은 중 하나이다. 나 는 채무자이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으며 그 비탈에서 일하고 채권자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악성 빚에 빠지 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다. 완전히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일 년도 안되어 다시 그 구멍에 빠졌다-무슨 일이 일어났던 말인가? 내 소비는 기본에 달려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에 피터블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순간을 즐기자. 그리고 이 순간에 살고 충분히 탐닉하고 서로 나누자. 그리고 결말은 있어도, 소망하는 것 외에, 소비하는 것 외에, 모든 자존감과 흥분을 느낀다. 나는 소비에 있어 갈피를 못 잡는다. 나는 돈을 소비할 것이다-결정된 것이 불필요하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다. 편안하다가 도 느껴진다. 아나 난 여유가 없어 그러하기도 행복하고 타만다. 돈에 느껴지고 싶다. 그러나 빚을 갚기 위해 지불되어야 했었을 돈을 물건 사는데 소비한 것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한다. 일을 자진 후 많은 후회를 한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적절한 돈은 항상 있다. 그러나 소 핏하면서 너무 많은 상품을 살 때 항상 좌익식을 느낀다. 내면의 소리는-이 돈은 그의 돈이다. 내가 벌지는 않았다. 진짜 남버서서 안 되는데.

2번 영역은 우리가 말하길 좋아하는 분야인 경향을 띠고 있다. 우리가 사는 상품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 게 만든다. 그러나 이 영역을 좀 더 탐구해보면 어떤 강한 반발이 느껴진다.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방법은 우리 내면의 깊은 원가를 건드리는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또한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소비선택 이 우리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 사랑, 우정을 사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는가? 소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피하게 될 때, 바로 그 행위는 무엇이 적절하기에 대한 자기 판단에 종종 우리가 압 도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상품들의 함축적인 의미를 조사해보기 보다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하였던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왜 그러했느냐 라는 이 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우리의 지행은 우리에게 고통을 야기한다. 소비에 의하여 우리가 교육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도 또한 놀라게 해줄 수 있다. 그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교육받기를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게 해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종종 교육받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2번 영역에 대한 도전은 소 비교육에 대한 결망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교육을 부정해왔는지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을 비로 근거의 장소에 정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총괄적으로 우리의 소비패턴은 능력이 능장을 공격하는 방식, 가족 을 키우는 방식을 이끌어 나가며, 국제적인 신적루트, 이민 패턴, 쓰레기 처리, 전쟁, 세계난 화, 기타 등등에 영향을 주 는 강력하면서도 진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소비하지 않을 때, 우 리의 이익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배달해주는 노동, 재원 그리고 에너지의 비극적인 낭비가 될 것이다. 이 세계는 우리 를 먹여 살리지만 소비에 의해 어떻게 우리가 양육되는가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욕 신과 영혼을 양육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비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과 타협하게 되고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사랑과 필요로움을 경험하는 능력과 타협하는 동시에 가지 있는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교육시키기 위하 여, 종종과 습관으로 행동하는 소비지향은 바꾸는 행위는 에너지의 이동을 요구한다. 우리들 중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그 변화는 더 큰 자신의 통증을 요구할 것이며 반면에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가지지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 이 요구하는 것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에 우리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 이는 능력이다. 다음 다섯 가지의 질문을 심사숙고해보자.

<2부에서 계속 >



영화와 상담심리학

보통사람들 <2부>

1 영화 <보통 사람들>

1. 영화에 대한 이해

(1) 영화의 시각적 측면

영화는 이미지, 즉 시각적 측면이 매우 강조되는 매체이다. 이미지는 생각이나 느낌 등 사고를 상징적으로 직접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영화적 특성은 교육이나 학습에 사용된다. 텍스트를 외우기보다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미지 학습은 학습자들의 사전경험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떤 주제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키는데 유용하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암추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기억효과가 높아진다. 부호화된 학습 내용은 오랫동안 기억에 저장할 수 있고, 개인의 의사는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인 이미지로 다양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이경록, 2011).

(2) 영화의 놀이적 측면

영화 관람은 목적 추구적 행동이 아니라 관람, 그 자체가 유일한 동기인 놀이성을 지닌다. 영화 관람은 기쁨이 있는 활동이며 그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간과 시간의 통질성을 파괴시키며 관객을 일상생활과 단절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독특하고 폐쇄적인 세계를 만들게 한다. 영화의 풍부한 상상의 세계에서 다양한 창조성을 일깨울 수 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표현하듯 영화를 통해 일상의 이상적 사고와 추체의 감정적 욕망 사이를 넘나들면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문화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3) 영화의 인지적 측면

영화를 보면 영화 속 주인공과 나 자신을 비교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준다. 이러한 영화의 인지적 측면은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고, 행동 변화의 통찰을 촉진하며 개인적 이해를 심화시켜준다.

(4) 영화의 정서적 측면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영화 속에 나오는 끔찍한 괴물이나 연쇄살인범을 보고 두려움과 긴장이 서늘해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론 멜로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휩쓸리는 감정을 맛보기도 한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죽음 같은 좌절감에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한다. 영화는 감성을 자극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감정 혹은 감정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위의 어떤 대상이나 일어난 현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기쁨, 슬픔, 슬픔, 슬픔, 괴로움, 두려움, 노여움, 사랑, 마음 등의 기분 상태이다(허승희, 2000). 따라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다양한 정서적 색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5) 영화의 관계적 측면

같은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영화를 함께 보고, 서로의 경험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른바 영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간적 형성은 신뢰와 소통에 필수적 요소이다. 신뢰가 형성되고 소통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영화라는 도구가 바로 그 열쇠인 것이다.

2 상담심리에 대한 이해

(1) 상담의 정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동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조력행위이다. 상담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이정호(1999)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다. 홍경자(2001)는 "상담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내담자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지도력을 획득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장차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조망과 해결능력을 갖게 되어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일련의 학습과정이다."라고 하였다.

(2) 상담 관계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며 혼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의 핵심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관계에 있다. 상담기법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새로운 경험, 즉 인간에 대한 한없는 포용과 수용력, 인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때문이다. 상담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은 '리포트(report)' 또는 '친밀감을 형성한다'라고 말한다. 라몬의 핵심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행위적으로 친절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데 있다. 즉 마음속 깊이 상대를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나의 문제인 것이다. 상담에서의 리포 형성을 위한 노력은 처음부터 상담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이다. 리포트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결속을 높여 주며,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또한 갈등을 줄여주며,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인간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효과적 상담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겨울을 품은 세계의 신년축제

매년 맞이하는 1월 1일이지만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설렘은 시간이지나도 변함이 없다. 세계 곳곳에서도 하얀 겨울과 신년을 기념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14년의 화려한 서막을 여는 1월의 축제들과 함께 새해의 분위기를 한껏 즐겨보자.

설원에서 즐기는 겨울축제

www.parkscanada.gc.ca/snowdays

겨울이라는 계절을 이타치하며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눈이다. 풍부한 적설량과 최고의 스키리조트들을 갖춘 알버타 주에서 설원의 눈부신 풍경을 전하고자 '스노우 데이즈'를 마련했다. 밴프 국립공원에서 개최되는 페스타벨은 1월 10일 스키와 스노우보드 선수들의 화려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빅베어 이벤트를 시작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의 승진보를 지원하는 파타와 킬링 울스타전이 각각 11일과 12일에 열린다. 17일에서 19일에는 올해로 20 주년을 맞이한 국제 얼음조각경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로컬 와인 시음회, 영화 상영회 및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는 따뜻한 먹거리로 겨울을 찾아 캐나다로 여행을 온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호주의 날

www.australia.com/ko

호주의 역사는 1788년 1월 26일 아서 필립 선장이 시드니 코브에 영국기를 꽂으며 시작되었다. 국경일로 지정된 1월 26일, 호주 전역에서는 수백 가지의 크고 작은 이벤트로 유럽인들이 호주에 도착한 것을 기념한다. 특히 시드니에서는 수천 명이 허버 해인에 운집한 가운데 축하 행사를 벌이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 공연을 준비하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이 날만큼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호주인들이 하나가 되어 단결을 외치며 원주민들 역시 호주에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연례행사를 통해 그들에 대한 이해와 존경, 화해를 도모한다. 역사와 전통이 깃든 호주의 날 행사를 통해 지금껏 알지 못했던 호주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보시기를.



눈꽃이 수놓은 그린델발트의 풍경

www.grindelwald.com

스위스의 인터라켄에 있는 산악마을 그린델발트에서는 매년 1월 전세계인들이 한데 모이는 특별한 축제가 개최된다.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세계 눈꽃 축제'는 1983년 한 일본인 아티스트가 하이드를 거대한 눈덩이 위에 조각하며 시작되었고, 현재는 우승자를 선정하는 대회이자 그린델발트 겨울의 대표 페스티벌로 자리잡았다. 관광객들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천연 아이스링크 위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아티스트들이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 심사단은 거대한 얼음공상을 보며 날카로운 평가를 하고 대중을 비롯한 여행자들을 또한 의견을 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눈꽃이 온 마을을 수놓은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 스위스의 낭만이 가득한 겨울을 만끽해보자.



공공 열어붙은 입맛, 따뜻하게 녹이기

www.stmoritz-gourmetfestival.ch

추운 겨울, 입맛을 살려주는 요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감이 모락모락 나는 것 지은 밥 한 공기도 좋지만 1월 스위스를 방문한다면 공공 열어붙은 입맛을 녹여줄 '생모리츠 마식축제'를 놓치지 말 것. 단순히 셰프들의 경쟁의 장이 아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각지에서 초청된 8명의 요리 대가들이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사다. 축제 기간에는 경연 외에도 각종 미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르빌리아 산 정상에서는 알프스 풍경과 함께 신선한 해산물과 삼페인을 즐길 수 있으며 생모리츠 바트루트 펠라스 호텔에서는 28일과 30일에 걸쳐 달콤한 초콜릿의 향연이 펼쳐진다. 미식가들과 음식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본 행사는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생모리츠 지역에서 개최된다.



새해 밤 賞(상)

치유하는 음식

음식은 치유의 힘을 지녔다. 맛있는 음식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리드하고 따뜻한 밤 한술에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래서 신년 요리 화보 주제는 새해의 기운을 북돋아줄 다양한 밤상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밤상은 음식을 갖춘 '상(床)'이면서 상 줄 '상(賞)'을 의미한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때론 남을 배려하는 상을 차리는 새해가 되었으면.



밤상의 의미

인성 교육의 부재로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밤상머리 교육'이다. 밤상머리 교육이란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며 인성을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많은 시간 중 식사 시간이 강조되는 이유는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갖는 의미 때문인데, 신조들은 밤상에서 지혜와 인내심, 배려를 지연스레 체득했다. 밤위를 가족에서 사회로 확대하더라도 밤상의 상징성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인부를 묻거나 친근함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식사하셨습니까?"와 "밤 한번 먹자"에는 걱정과 관심, 반가움과 고마움의 정서가 함축돼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밤상은 단순히 허기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왔다.



나를 위한 賞, 새해 첫반상

새해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면 '떡국'이다. 정월 초하루에 떡국을 먹는 이유에 대해 문헌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긴 가래떡처럼 장수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새해 첫날, 나를 위해 차리는 밤상은 매해 먹는 떡국 대신 우리나라 전통 상차림에 준해 준비했다. 원래 우리 반상 차림은 한 사람 앞에 한 상씩 차리는 외상 차림이 원칙이었다. 밤상은 기본적으로 남과 나누는 상이라지만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차리는 상도 필요하다.



아웃과나누는 賞, 떡상

새해 첫날, 뜨거운 김을 내며 끓여진 가래떡이 뽀얗져 나오던 떡집 풍경이 떠오른다. 명절처럼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날에는 어간없이 소반 위에 떡을 올려놓았다. 인국이 테어나 죽을 때까지 인생의 회로에력을 같이하는 떡은 이웃과 나누기 좋은 음식이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부담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랑말랑 인절미

새해가 되면 가래떡만큼이나 인기가 높았던 떡이 인절미이다. 인절미는 충분히 불린 찹쌀을 찌서 떡메로 쳐 찢기가 생기게 한 다음 보기가 좋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고를을 문혀 만든다. 갓 만들어 온기가 남아 있는 찰떡에 콩고물을 듬뿍 묻혀 한입에 넣으면 고소함이 가득 전해진다. 유교강진 [주례(周禮)]에 보면 인절미가 가장 오래된 떡으로, 떡 중의 별미로 기록되어 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다니러 왔다가 돌아갈 때 '임마게떡'이라 해 인절미를 크게 만들어 보내는 풍습이 있었고, 끈적거리고 착 달라붙는 성질 때문에 혼례상에 빠지지 않고 올랐다. 한편 인절미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반란군에 쫓긴 인조가 광주 공산성에 머물 때의 일이다. 백성들이 떡을 진상했는데 임에 착 달라붙을 만큼 쫄깃하고 맛이 있어 '최고의 맛' 점미(總味)라고 극찬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수소문해 알아보니 임씨 성을 가진 농부가 진상한 것으로 떡 이름은 모른다고 했다. 이에 인조는 임씨 성을 얹어 붙여 떡 이름을 '임절미'라 지었고, 오늘날 인절미가 되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홍을 돋우는 賞, 술상

예로부터 사랑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차리는 상이 주안상이었다. 우리나라에 술은 많이 많았고, 술자리 예의범절인 '주례(周禮)'와 '주행(漸行)'을 존중했으며, 손님에게 주안상을 차려 대접하는 것이 예의였다. 우리 전통 술은 탁주(막걸리)와 약주(청주), 증류주(소주)로 대표되며, 안주는 미륵안주와 절강, 전회, 전갈 등을 차려 냈다. 홍을 돋우는 상은 우리나라 전통술인 막걸리로 차린 모던한 술상과 최근 가장 트렌디한 술인 싱글 몰트위스키로 차린 클래식한 술상을 준비했다. 취향껏 골라 마음껏 즐기시기를.

한국에너지그림교육연구소 검사도구 및 출판도서를 소개합니다.

구매문의 02)3446-3165

※ PDF 파일을 다운받아 도서 표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구



KEPSTI 한국형에너지그림 간판성격유형검사



KEP7I 한국형에너지그림 성격유형검사



KEPT-J 한국형에너지그림 성격유형검사 청소년용



KEP7I-CLS 한국형에너지그림 진로 및 학습유형검사



KEP7I 한국형에너지그림 아동용 성격유형검사



KEPT-Y 한국형에너지그림 2판성격유형검사 아동·청소년용



KEPSTI 한국형에너지그림 성격자유형검사

한국에너지그림교육연구소 검사도구 및 출판도서를 소개합니다.

구매문의 02)3446-3165

※ PDF 파일을 다운받아 도서 표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도서

더 많은 도서 확인하려면 기가!



• 통합의 측면 : 신성한 사교의 에너지그림



• 에너지그림과 함께 영혼잡재력 발견하기



• 한국형에너지그림 사례집II



• 에너지그림 실제 가이드



• 에너지그림 명상



• 에너지그림 성격유형



• 에너지그림으로 본 다문화·세상



•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9가지 성격



• 에너지그림 지능



• 에너지그림 2



• 에너지그림과 돈 : 두라움에서 사랑까지



• 에너지그림을 통한 지혜리더십



• 에너지그림의 깨달음



• 정단지능과 변명을 위한 9가지 성격원리



• 행심에너지그림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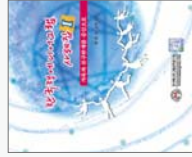
• 에너지그림 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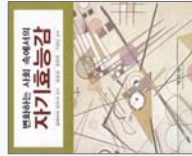
• 영화로 배우는 심리학개론



• 필수 에너지그림



• 한국형에너지그림 사례집



•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위 검사지는 한국에너지그림교육연구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형에너지그림 단계 이상 수강자에 한해 홈페이지 및 전화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테크노빌 116호
TEL. 02)8446-3165 FAX. 02)515-6784 Email. help@keneagram.com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일시 2016.12.12(월)~2017.01.01(일)
장소 창계천변 창계광장~강동교 일원
행사소개 경향신문사, 씨재널, 이기펜문화재단, 백석예술대학교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2016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2016년 12월 12일(토)부터 2017년 1월 10일(일)까지 30일간, 서울시 창계천변 창계광장 중심으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축제이다. 올해로 제1회를 맞이하는 본 축제는 창계천 일대 156m 구간을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트리 테마파크와 스토리가 있는 포토존으로 구성되어 30일 내내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또한 온 국민이 함께 웃고 보듬으며 찾아가는 이웃사랑이 이웃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여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연말연시 행사가 될 것이다.



SCENARIO MASTER

리본 조의석 김현태 감독 조의석 제작 영화사립

미스터

개봉예정일 2016.12.21
감독 조의석
출연 이병헌, 강동원, 김유민



2017 한옥바람희

기간 2017.02.09(목) ~ 2016.02.12(일)
장소 킨텍스 제전시장 3홀
행사소개

2017 한옥바람희는 전통한옥 설계 및 시공, 건축자재부터 인테리어, 가구까지 전통건축과 현대건축 등 폭넓은 전통건축산업 업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한옥에 관련된 산업체, 기관, 장인, 일반 소비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한옥을 찾고자 하는 일반인부터, 한옥을 찾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함께 한옥산업과 문화가 나아갈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1회 이월드 별빛축제

일시 2016.11.19(토)~2016.12.31(일)
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행사소개

올해로 4회째 이어지는 이월드 별빛축제는 라는 슬로건으로 기존 화려한 불빛에 신나는 음악까지 더해져 더욱더 풍성한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12만여명의 이월드와 대구 랜드마크인 88타워를 각 존별 컨셉에 맞는 음악과 불빛으로 두둑어 연인을 비롯한 가족고객에게 꿈과 사랑을 전하며 이듬달고 화려한 밤으로 빛날 것으로 예고한다. 이월드와 함께 경북의 랜드마크인 88타워의 아름다운 이랜드를 통해 대구 시내의 이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축제의 장이다.



도서 소개

한국형에니어그램 사례집!!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사례증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척이 음미하면서 읽으면 많은 인간관계의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접근하면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읽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유형을 중심으로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읽고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던 더욱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에니어그램 성격 : 자기발전과 인간관계

많은 직장인들이 요즘 '직장생활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한 회사에서 일생동안 일생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도 붕괴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본인의 신조와 인생의 지침을 잃어버린 채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산수덕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이 책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도일 뿐이다. 그 쪽 보다는 저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제한하는 지도인 것이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삶은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목표로 향해 전진해야 하고 자신의 두 다리로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상에 행복과 풍요로운 인생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에니어그램이라는 지도를 얻었다. 조금은 불가사의한 지도를 얻었다. 에니어그램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다. 그러나 에니어그램이라는 지도는 결코 쉽지 않다. 필자는 처음부터 이 지도를 신봉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항상 의문을 갖고 일상 생활 속에서 에니어그램의 신빙성을 검증해 주기를 바란다.

에니어그램은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어떤 인간학이나 심리학보다 귀중한 지혜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지혜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차원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지도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진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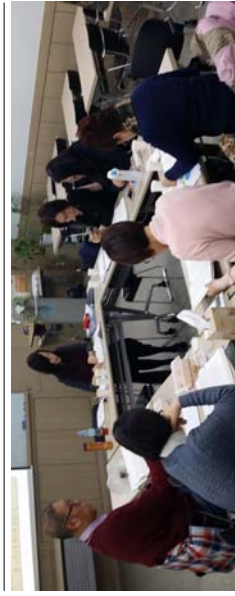
2016년 12월 2(금)~4(일)일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에서 한국형에니어그램 진로지도를 실시하였다. 조주영, 이도경, 박현경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진행된 본 교육은 한국형에니어그램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여 자기상장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지도자를 위한 과정이다.

한국형에니어그램 4단계



2016년 12월 10(토)~11(일)일 상록리조트에서 한국형에니어그램 4단계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연구소의 윤운성 소장님 및 전임교수진의 강의와 지도로 이루어진 4단계 교육은 에니어그램 평가라는 주제와 통합으로 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에니어그램의 힘본격(머리, 인간관계(가슴), 행동적(장) 풍부 뿐만아니라 각각의 통합적인 자기를 지향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에니어그램 성격연구회



2016년 12월 14(수) 사단법인 상심인성연구원 서울분원에서 박현경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에니어그램 성격연구회가 '신프로이트화라이저 여성심리학자인 카렌 호노이의 이론에 대해 마무리하며 진행되었다. 카렌 호노이의 이론 중 성격형성에 대한 개념은 에니어그램의 이론을 밀도있게 이해해나가는 시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형에니어그램 도구워크샵



2016년 12월 16(금)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에서 이도경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한국형에니어그램 도구워크샵이 진행되었다.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는 맵사다리, 레포트카드, 직업패널, 직업카드, 직업선택표를 포함한 여러 도구를 개발,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에니어그램진로 및 학습유형검사는 물론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었다.

한국형에니어그램 상담실제



2016년 12월 17(토)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에서 박현경 전임교수의 지도 하에 한국형에니어그램 상담실제가 진행되었다. 한국형에니어그램 상담실제는 한국형에니어그램을 활용하여 상담현장이나 교육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와 교육생의 자기 통합 및 성장을 돕는 과정이다.

한국에니어그램그룹 송년회



2016년 12월 21(수)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에서 한국에니어그램-송년회를 개최하였다. 본연구소의 윤운성 회장님과 전임교수님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 청소년리더십진로교육센터, 더티움심리상담발달센터, 자매기관인 사단법인 상심인성연구원의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참석하여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후 일정은 한국에너그렐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kenneagram.com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JANUARY 20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광주통합과정**
09:00-19:00 / 서울교육장
황은신 전임교수

* **가족상담**
10:00-18:00 / 서울교육장
김명수, 류정자 전임교수

* **2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지미신 전임교수

* **2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지미신 전임교수

* **4.5 심화단계**

* **4.5 심화단계**

15

16

17

18

19

20

21

* **4.5 심화단계**

* **3단계**
10:00-18:00 / 서울교육장
황은신 전임교수

* **영화테라피**
09:00-18:00 / 서울교육장
소희정 전임교수

* **1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지미신 전임교수

* **상담실제**
10:00-18:00 / 서울교육장
박현경 전임교수

22

23

24

25

26

27

28

* **2단계**
09:00-19:00 / 서울교육장
박현경 전임교수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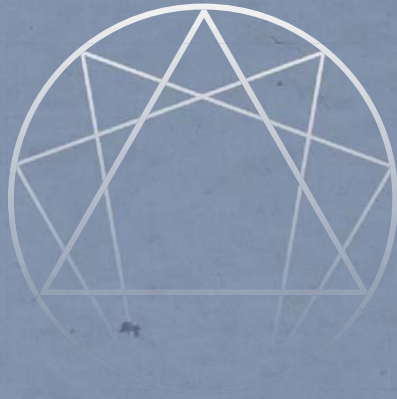
1

2

3

4

본 지에 나온 내용의 무단전제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



ISSN 2288-2251
등록번호 : 금천 라 00139호
2016년 12월 25일 ~ 2017년 1월 24일
편집기획 및 디자인 : 류재현

발행인 · 편집인 : 윤운성
기사제보 : 02-3446-3165 / FAX : 02-515-6784
인쇄 : 한국에너지그림교육연구소
편집위원 : 김새한별, 안신영, 윤완진

'월간 나눔과 힐링'은 매월 25일에 발간하여 한국형에너지그림의 소식과 학술단체 및 복지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통합 매거진입니다.